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the Urban Regeneration Education Program



박 성 원 /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Park, Sung-Won / Senior Researcher, Cheonan-si Urban Regeneration Division
 eclipse-day@lh.or.kr

1. 서론

한국의 도시재생은 2014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재 총 13곳의 선도지역과 33개의 일반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을 수립하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물론 현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현장활동가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이며 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키-피슨(Key Person)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전문인력확보와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역량강화라는 것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인식은 물론 정책제안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위한 방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현실화 된다는 점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중심에 설 전문인재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재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효과에 대하여

현재 많은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해보면, 지역 현안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기간 또한 6주~8주로 짧아 교육 이수 후 수강생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식변화나 지식 습득에 기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



그림 1.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9기 수업 (마을활성화팀)



그림 2.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9기 (현장답사)

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지침이나 규정도 없이 성과대기식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교육효과나 의의에 대하여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지영·황규홍(2017)은 도시재생 중간조직의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며,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중장기적 차원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나 단체의 역량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 이수 후 사후관리제도를 철저히 하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김도연·유재우(2016)는 도시재생교육에 있어 지역별로 주민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이 다른 점을 들어, 그에 맞게 교육커리큘럼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자원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각기 달랐으며 향후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문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필요하다.

4. 천안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현황

본 장에서는 천안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표1).

4.1 도시재생대학의 팀 구성의 특성

천안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내용 중 팀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권 활성화 및 사업과 관련하여 팀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천안 원도심의 경우에는 ‘천안역지하상가’, ‘명동거리상점가’, ‘공설시장상점가’ 관련 분들을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었으며, 병천마을과 남산중앙시장 역시 상점가와 관련된 분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참여자들 중, 일반 거주자 또한 많이 참여를 하였고, 강의내용도 도시재생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제안서 작성이나 문제점 도출 부분에서 일반 거주자들 보다 상권활성화 로의 이야기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4.2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과 교육기간

도시재생대학은 각각 5주차 2회, 6주차 2회, 7주차 1회, 8주차 3회로 운영이 되어 대체로 5주차~8주차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교육이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1~2주차에는 도시재생을 이해하기위한 기초교육이 실시되었고, 2~3주차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제점 인식 등의 지역특성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3~4주차에는 문제점과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5~6주차에는 현장견학 및 제안서 작성, 7~8주차에는 최종발표 및 수료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1기부터 7기까지는 천안 원도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8~9기는 이전까지의 운영노

표 1.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주최·주관	개강일(기간)	내용
1기	(주)도화엔지니어링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01월 (5주차)	천안역 공설시장, 지하상가활성화, 신부문화거리활성화, 천일시장 활성화으로 나누어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에 대하여 토론 및 발표
2기	천안시	2014.05월 (8주차)	천안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도시계획과 디자인 실습을 진행
3기	천안시	2014.09월 (8주차)	타 지역의 도시재생선도사례를 견학하고, 천안 원도심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짐
4기	천안시	2015.05월 (6주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 또한, 지역공동체와 지역활성화의 개념공유
5기	천안시	2015.10월 (6주차)	천안 원도심을 대상으로 지하상가활성화팀, 명동거리활성화팀, 문성동/공설시장 활성화 팀으로 나누어 상권회복에 대하여 발표1
6기	천안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5.12월 (8주차)	천안 원도심을 대상으로 지하상가활성화팀, 명동거리활성화팀, 문성동/공설시장 활성화 팀으로 나누어 상권회복에 대하여 발표2
7기	천안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6.10월 (7주차)	천안 원도심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원도심활성화, 원도심임대인, 다문화팀으로 나누어 서로간의 문제점과 현안발표
8기	천안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7.06월 (5주차)	천안시 병천마을을 대상으로 상인 및 주민과 마을활성화와 관련하여 순대거리와 장육 등의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발표
9기	천안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7.08월 (5주차)	천안시 남산중앙시장 일대의 상인회와 거주자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

하우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병천마을과 남산중앙시장일대에서 각각 개최를 하였다.

4.3 도시재생대학의 운영효과

천안시는 1기부터 7기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8기에는 ‘청년창업팀’, ‘원도심활성화팀’, ‘임대인팀’, ‘다문화팀’으로 팀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도시재생활안마당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2016.12.6.)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창업팀’의 팀원 중 절반 정도가 원도심 내 창업을 하여 현재까지도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카페빼꼼’, ‘까치목공소’, ‘르멜란지’ 등의 재생대학 수료자인 청년 창업가들은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원도심활성화팀’의 팀원 또한 창업에 성공한 ‘인더갤러리’, ‘달팽이사진관’이 있으며 팀원 중 일부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행사나 강연에 활발한 참가 및 활동을 하고 있다.

4.4 운영상 문제와 현실적 한계점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상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손꼽히는 것은, 지역 전문가의 확보와 운영인력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각각 특성에 맞추어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에 따라 교육생들의 수준과 입장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 진행이 되어 수업내용의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의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을 도새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출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깊이 모색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 다른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사례소개

천안 원도심에는 도시재생대학과는 별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뚜렷한 목적의

식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교육대상자 또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1 도심형 청소년 진로교육공동체 운영사례

천안 원도심의 청년 창업가이기도 한 「(주)영클컴퍼니」의 유병준 대표는, 2015년부터 원도심에서 활동하며 지역 사회를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5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공(共供)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관리가 되지않는 화분을 참여 청소년들과 같이 업사이클링을 하여 성취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참여인원은 유병준대표(사회복지사1급)을 포함하여 플라워 디자이너(원예조경디자인전공), 청소년활동가(사회복지학전공)과 지역청소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활동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지역청소년의 실질적 참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청소년 스스로에게도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하여 공공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를 보였다.

또한 2016년에는 [2016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불량(不量)소녀’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문화기획단체 ‘불량(不量)소녀’가 기획참여하였으며,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중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지역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로 미래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꾀하였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 다양한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사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불량소녀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로의 도장 받아오기 “trick or treat”

- 원도심의 6개의 점포와 협의 후 진행하는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 각각 점포에 찾아가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진행한다. 게임을 모두 성공하여 사탕(호두) 도장을 찍어 올 경우 소정의 상품으로 교환
- 소정의 상품은 원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증정
- 미니게임(디비디비답, 가위바위보, abcd) 등
- 각 점포 마다 진행요원 배치

(* 본래의 사탕 받아오기 콘텐츠에서 위로의 컨셉에 맞춰 위로의 말이 담긴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변경)

2) 원도심 보물찾기

- 원도심 일대 야광으로 된 표식을 숨겨 놓고, 찾아 올

- 경우 소정의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원도심지도를 제작, 맛집과 중요 장소를 표기
- 소정의 상품은 원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 (행사 후에도 인원이 원도심을 재 방문하게 함)
- (*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
- 3) 7개의 체험 부스 돌기
- 7가지 체험 부스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ex. 탕수육 게임, 어려운 발음 맞추기, 향수 만들기 체험 부스)
- 4) 체험부스, 공포체험관
- 타로카드, 할로윈 페이스페인팅, 향수 만들기 체험 등

이와 같이 청소년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 낼 만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여율과 재미를 높이고, 천안 원도심을 더 알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여인원은 관련 전문인력 8명이 포함되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소방서와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듣다’를 기획 및 개최하여 ‘즐거고 소통하여 가치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성화를 증진시켰다.

현재는 도심형 청소년진로교육 공동체 ‘학교 밖 연구소’를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활동, 지역 청년 및 청소년의 멘토링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성장, 창업가 및 대학생을 멘토로 한 실무적 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표2).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상을 확립, 원도심 네트워크의 활성화,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연계 등이 있다.

4.2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운영사례

2017년 5월에 천안 원도심에 개소한 ‘도시창조 두드림센터’에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 입주하여 있으며, 이 기관은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창업이전 단계부터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창작소, 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문화예술활동공간을 제공, 창의인재 및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현재 원도심 내 다양한 축제 및 공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 불량(不量)소녀프로젝트 오프라인 홍보활동



그림 4. 불량(不量)소녀 프로젝트 컨설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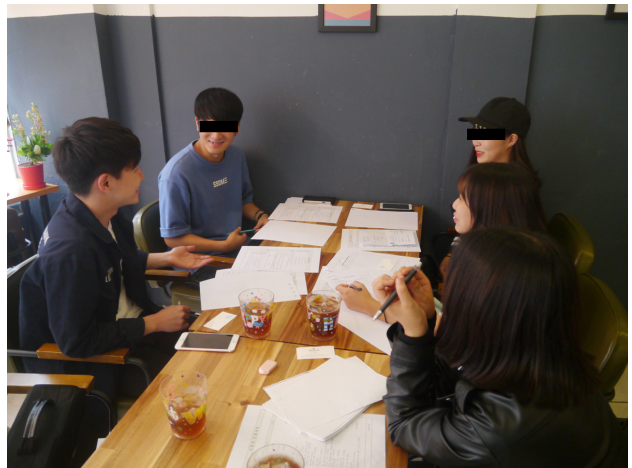


그림 5. 불량(不量)소녀 프로젝트 교육사진

6. 결론

본 고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의 현황과 효과·문제점들을 살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시설 계획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까지 시행된 도시재생대학의 취지와 규모에 비해 나타난 기대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문가의 참여와 실질적으로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목적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하는 뚜렷한 목적과 예상 결과가 없이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의욕과 이해도가 저하되었으며, 도시재생대학 종강 후 수료생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되고 있지 않았다.

둘째, 타 지자체·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는 작동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와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되지않아 교육내용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서로의 교육내용을 잘 연계하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교육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소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체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영클컴퍼니’의 유병준 대표와 도시재생대학의 커리큘럼을 연계작성하여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고, 한국해비타트나 지역목공

소 등과 연계하여 집수리 프로그램 전문교육을 강화한 도시재생대학 등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내용을 철저히 전문화하여 수료 후 정말 활동가로서, 지역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야한다.

본 고에서는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사례와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을 예로들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이러한 데이터 및 분석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지자체의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 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고지영·황규홍,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도시재생교육 프로그램 한계점 및 개선사항 도출, 한국주거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 2017
2. 김도연·유재우, 도시재생 교육 참여 주민의 지역별 선호 특성, 2016 대학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제36권 제2호(통권 66집), 2016
3.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자료집 1기~9기
4. 박성원, 도시정보, 지역리포트_천안시 도시재생으로 물들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No.426, 2017
5.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2. 천안 원도심 ‘학교 밖 연구소’ 프로그램 진행 세부내용

활동	프로그램명	진행 방법
진로탐색 활동	Recruit (대상자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모집 및 선정 • 개별 면접 진행
	Plan (진로탐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 진로탐색활동 기초교육진행 • 대학생멘토와 관계형성 프로그램 • 진로의식 프로그램 • 대학생 멘토와 자율적으로 진로탐색활동 계획
	Action (진로탐색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와 연 15회 이상 진로탐색활동 진행
	Evaluation (진로탐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진로탐색 활동 평가회의 진행 • 월 평가를 바탕으로 진로탐색활동 격려 및 지지
직업인 멘토링	Lecture (직업인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회 이상 지역의 직업인 강의 진행
	Experience (직업인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회 이상 진로계획에 맞는 직업인의 현장 방문
집단 프로그램	Discovery (강점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회 이상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 진행
사례관리	Assistance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지역의 전문가와 사례관리 회의 진행 • 참여 청소년의 문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